

한글학교 교사를 위한 국악놀이

전 송 배

(사)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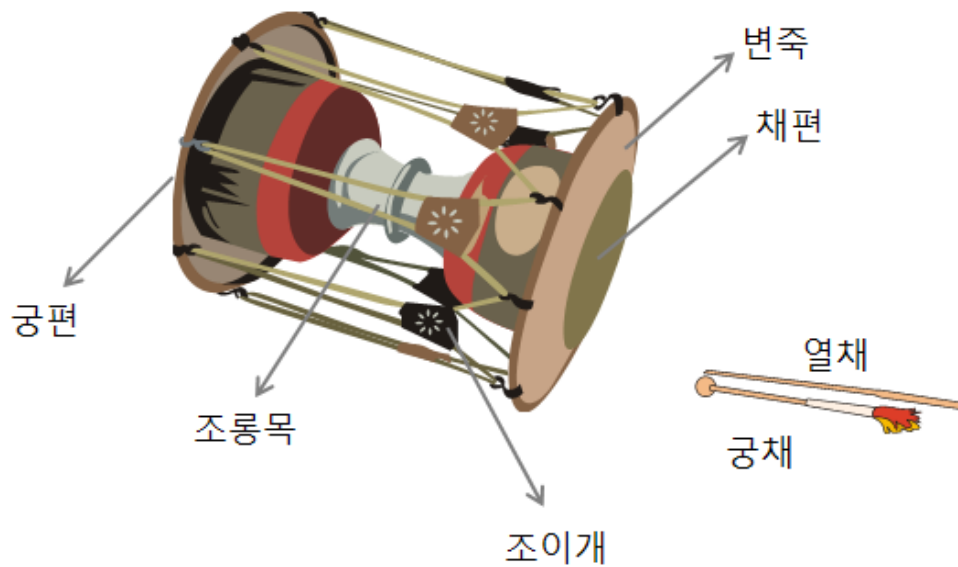
- 목차 -

I. 영아기 노래 및 전래동요와 함께하는 국악놀이

II. 소고놀이

III. 탈춤놀이

I. 영아기 노래 및 전래동요와 함께하는 국악놀이



1. 전래놀이의 개념과 교육적 의의

전래놀이는 예로부터 우리민족이 일과 생활 속에서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고유한 민족 오락이다. 산 좋고 물 맑은 이 땅에서 오랜 세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온 우리 민초들은 명절날이나 휴식일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흥겨운 놀이를 많이 하여왔다. 즉 전래놀이는 고대로부터 일반적으로 행해지면서 민간에 의해 전승되어 오는 여러 가지 놀이로서 전통성, 역사성, 고유성, 지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속에는 전통사회가 기르고자 했던 신념

과 가치를 담고 있다.

특히 아이들에게 놀이는 삶의 일부분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가정놀이 속에서 나의 존재를 인식하며 부모, 형제, 친지와 하나가 되고, 친구들과의 놀이를 통해 삶의 영역을 넓혀 나가며 사회의 규범을 익혀갔던 것이다. 더 나아가 마을의 공동체놀이를 통해 그 사회의 일원이 되며, 공동체를 이끌어갈 역군으로 성장해 간 것이다.

어른들은 임산부에게 혹은 갓난아기의 엄마에게 “아기가 잘 노는가?”하고 묻는데, 여기서 ‘논다’는 결국 ‘살아있다’와 ‘건강하다’를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흔히 쓰는 ‘사람 노릇’에서 ‘노릇’은 ‘놀+웃’의 합성어로 어간이 ‘놀다’의 ‘놀’이다. 즉 놀이는 요즘의 개념인 유희 이상의 '인간적 품성'이라는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래는 ‘놀이 1’에서 파생된 말로서 노래와 놀이는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아이들이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 자꾸 조르면 엄마는 ‘아주 노래를 불러라 노래를 불러’라고 하는데, 이 말은 노래 속에는 아이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듯 놀이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살고 있음을 나타내는 아이들 마음의 표현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놀이는 놀이인원에 따라 혼자놀이, 짝놀이, 여럿이놀이로 놀이장소에 따라 실내놀이와 야외놀이로 표현방식에 따라 말놀이, 노래놀이, 몸놀이, 흥내놀이, 놀림놀이 등으로 나뉘볼 수 있으며, 기구를 활용한 민속놀이 또한 아이들의 전래놀이에 포함된다.

전통은 지나간 과거 속에 묻힌 유물이 아니다. 전통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며, 더 나아가 미래를 창조하는 힘의 원천으로서, 한국적 창의성 발현의 ‘샘’이며 현재에도 끊임없이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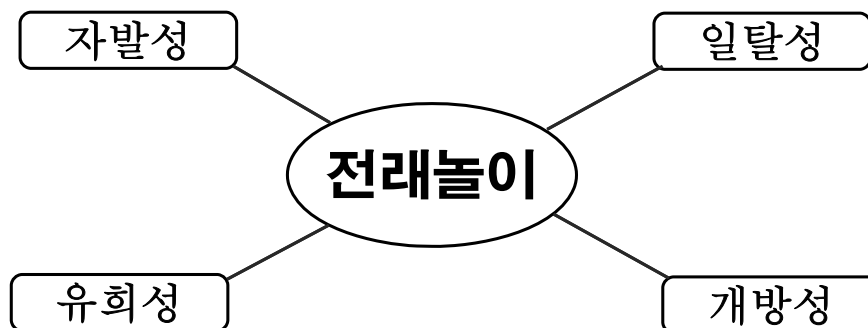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습, 가치관, 신념, 행동양식 등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전래놀이를 통한 아동의 정체성 함양은 세계 속의 한국 건설이라는 목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 전래놀이의 교육적 가치

- 1) 아동의 사회, 정서, 인지, 신체, 창의력 발달 등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돕는다.
- 2)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하고 규칙을 따르는 과정을 통해 상호존중과 공동체 의식을 기른다.
- 3) 자연친화적이며 여유 있는 심성을 기르는 인성교육의 중요한 기제가 된다.
- 4) 전통문화에 긍지를 가지게 되고 정체성 확립을 돕는다.
- 5) 놀이와 함께하는 노래를 통해 한민족음악의 어법과 율동 방식을 체득한다.
- 6) 말과 노래 가사를 통해 국어 발달을 촉진한다.



3. 전래놀이의 특성



4. 전래놀이의 분류

1) 영아기 노래 놀이

- 곤지곤지, 찹찹, 짹자쿵, 도리도리, 들강달강, 둥개야, 꼬부랑할머니, 질라래비 훨훨, 불무불무 등

2) 노래와 함께 했던 놀이

- 놀이하며 부르는 노래 : 두껍아, 이거리저거리각거리, 쥐야쥐야, 뽕뽕장서방, 저달봤나, 어디까지왔나, 어깨동무씨동무, 맴맴, 방아깨비, 풍뎡이, 나무노래, 닭잡기놀이 등
- 놀리며 부르는 노래 : 앞니빠진 갈가지, 오줌싸게 똥싸게, 중중떼떼중, 성풀이
- 바라며 부르는 노래 : 바람아바람아불어라, 비야비야오너라, 해야해야나오너라, 잠자리꿈꿈, 하마하마춤춰라 등

- 흥내 내며 부르는 노래 : 부엉부엉, 방아개비, 매미, 메뚜기, 뽕뽕장서방 등
- 익히며 부르는 노래 : 가가가다가, 별하나나하나, 성풀이노래, 땡뽕 등

3) 기구를 활용한 민속놀이

-고누, 공기, 그네, 제기, 널뛰기, 죽마타기, 돌차기, 비석치기, 산가지놀이, 썰매타기, 연날리기, 옷놀이, 자치기, 장치기, 줄다리기, 칠교, 투호, 팽이, 구슬치기, 콩주머니 돌리기 등

4) 집단놀이

-강강술래(고사리꿇기, 기와밟기, 남생이놀이, 대문놀이, 덕석몰이, 청어엮기 등), 줄다리기, 기마싸움, 꼬리잡기, 닭싸움, 봉사놀이, 술래잡기, 숨박꼭질, 다리세기, 닭잡기, 송아지따기, 까막잡기, 수박(동아)따기 등

5) 개인놀이, 짝놀이

-소꿉놀이, 두꺼비집, 목말타기, 씨름 등

5. 영아기 노래놀이 및 전래동요에 대하여

1) 한국영아음악의 특징과 사회화

우리 민족은 그 어느 민족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내용과 방법으로 아기를 길렀다. 짜짜쿵, 잼잼, 도리도리, 질라래비 훨훨, 둥개둥개, 들강달강 등의 영아음악은 영아의 신체, 정서 발달을 고려해 구조화 되었으며, 이는 또한 한국인의 원초적 음악문화와 사회적 동질성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영아음악의 내용은 노래하는 사람의 취향과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부녀자들의 단순한 말놀이나 녀두리가 아닌 농경사회의 생활방식과 정신세계 그리고 면면히 이어 내려오는 민간신앙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노래들은 아기의 안정된 정서와 신체발달을 도모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학습시키는 중요한 교육수단이 되었다. 각각의 단계에서 불러졌던 노래는 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신앙체계, 가치관, 생활방식 등을 구조화 하고 암호화 시켜 영아에게 전달하였던 것이다.

영아음악의 음악적 특징을 보면 첫째, 그 속도감은 메트로놈의 빠르기로 나타냈을 때 M.M. ♩=76 에 가장 많은 분포를 포이고 있다.¹⁾ 이 속도감은 굿거리나 타령 장단에 가깝다. 영아기에 어머니나 할머니의 품에서 들었던 영아음악의 속도감은 그대로 한국인의 원초적 음악성을 결정지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음악문화를 창조해 나갔다. 이러한 음악적 감성에 의해 한국인은 정서적 안정을 찾았고 생기를 일으켜 더욱 신명나는 장단문화를 확대해 나간 것이다.

둘째, 음의 구조를 보면 완전 4도(mi-la)의 2음 구성에서 완전 4도+ 단3도(mi-la-do)의 3음 구성으로 확대되며 발전해 갔다. 특히 3음 구성으로 된 노래가 대부분이다. 이러

1) 노동은, 『韓國嬰兒音樂研究』(音樂春秋社, 1984), 193~199쪽

한 음 구성은 민요나 기타 음악에서도 발견되는 한국음악의 중심 음구성이기도 하다. 즉 한국영아음악의 구조는 다양한 음악적 세계로 확대되어 갔으며, 한국음악은 다양한 변화와 창조 속에서도 늘 영아음악의 세계로 회귀하고자 하는 본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곧 한국음악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으며, 국악교육이 영아음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셋째, 한 마디마다 한 번씩 호흡하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호흡에 기초한 한국음악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호흡이 시작된 직후의 첫 박이 강한 속성을 지는 것을 영아음악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새로운 호흡을 준비하는 세 번째 박(맺는 부분)에서 강세가 들어가는 장단의 성질 또한 여기에서 설명된다.

요컨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시스템을 암호화 시키고, 한국인의 삶 속에서 잉태된 음악문화적 특징을 구조화 시켜 영아의 신체 · 정서 · 사회성 발달을 도모한 고유의 육아방식이 한국영아음악에 숨겨져 있는 것이다.

영유아 보육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이 때, 우리의 아기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노래가 한국영아음악이다. 한편 영아음악은 아이가 자라남에 따라 전래동요, 민요 등으로 재생산되고 사회화 되어간다. 출생 이후 처음으로 듣게 된 음악은 한 인간의 의식 심연에 자리 잡아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는 놀이요로, 고된 노동의 수고를 덜고 일의 효율을 높인 노동요로, 한 공동체 구성원이 모두 하나 되어 어울린 축제의 장에서 행해졌던 모든 음악적 행위로,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이를 마지막으로 보냈던 의식요로 각각 표출되어 생생히 부활하였으며, 영아음악에 기반을 둔 음악적 경험은 한 지역 공동체 구성원이 동질감을 가질 수 있었던 강력한 기제가 되었다. 이러한 음악적 동질감을 근거로 한민족 고유의 음악적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음악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행동이 일어나지 않으며, 역으로 행동이 없으면 음악의 개념은 만들어 지지 않는다. 한국사회에서 펼쳐진 음악행위는 특정한 음악적 개념위에 존재하고 향유될 수 있었으며, 음악적 개념은 한민족의 음악행위를 상징적으로 압축해 놓은 역사 속에서 형성될 수 있었다. 한국인의 음악행위를 일어나게 한 음악적 개념의 뿌리가 곧 한국영아음악이라 할 수 있으며 영아음악으로 인해 형성된 음악적 개념이 전 생애에 걸친 음악행위로 펼쳐지는 과정이 곧 한국영아음악의 사회화 과정이다.

한국영아음악의 사회화 과정을 추적해 보는 것은 국악교육의 단계를 설정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영아음악에서 보이는 음질서가 전래동요로 표현되고, 민요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연령별·시기별 노래의 변화과정을 밝혀낼 수 있고, 각각의 노래가 인간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봄으로써 국악교육이 한 인간의 인간화와 사회화에 기여하는 바를 논의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한국영아음악의 사회화 과정을 논의하기 위한 출발로서도 영아음악에 대한 본격적이고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

2) 한국영아음악의 종류

한국 영아음악의 종류를 발달단계에 맞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아기의 발달단계와 노래들】²⁾

개월 행위와 노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음마음마					■	■	■	■				
2. 꼬노꼬노					■	■	■					
3. 짹짹					■	■	■	■				
4. 짹짹						■	■	■	■			
5. 곤지곤지							■	■	■	■		
6. 도리도리								■	■	■		
7. 도리도리, 짹짹 종합								■	■	■		
8. 질라래비훅훅								■	■	■	■	■
9. 등개등개								■	■	■	■	
10. 불아불아								■	■	■	■	
11. 달강달강								■	■	■	■	
12. 둘레둘레									■	■	■	■
13. 섬마섬마									■	■	■	
14. 소리개 떼따											■	■
15. 걸음마											■	■
16. 드들쿨												■
17. 쭈쭈	■	■	■	■	■	■	■	■	■	■	■	■
18. 까르르까꿍	■	■	■	■	■	■	■	■	■	■	■	■
19. 호랑이 온다	■	■	■	■	■	■	■	■	■	■	■	■
20. 내손이 약손	■	■	■	■	■	■	■	■	■	■	■	■
21. 까치야 까치야	■	■	■	■	■	■	■	■	■	■	■	■
22. 자장자장	■	■	■	■	■	■	■	■	■	■	■	■

2) 위의 표는 노동은 교수에 의해 1976년 12월부터 1982년 8월 말까지 조사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노동은, 앞의 책, 19쪽 참조.

3) 전래동요의 개념과 분류

전래동요는 옛 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이들의 노래를 말한다. 일반적인 민요에 속하는 노래 가운데 아이들이 주로 부르는 것을 전래동요라 한다. 전래동요(傳來童謠)는 전승동요(傳承童謠) · 구전동요(口傳童謠) · 구승동요(口承童謠) 등으로 불리우지기도 하는데, 옛날 어린이로부터 오늘날의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구구전승(口口傳承)되어,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어 온 노래로서 아동가요의 약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발생 · 전승의 주체는 어린이이며, 공동작으로서 구비문학적 특징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작가가 창작한 동요시와 구별된다. 노래 부르는 것도 곡조에 제약을 크게 받지 않고 노래로 불려지거나, 웅얼거리는 소리로서 구전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변모 · 개작되기도 하면서 어린이의 꿈 · 바램 · 의식을 담은 민중사회의 어린이 노래이다. 또한 엄마의 자장가로부터 시작되어 영아기 노래놀이를 거쳐, 아동기의 동요를 통해 그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음악을 통한 사회화과정의 핵심이 바로 동요였던 것이다.

전래동요의 분류는 기준과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로 이뤄질 수 있다. 즉 대상과 목적에 따라 분류기준이 다르고 또 그 기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는 기능과 사설, 가락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시대나 지역, 창자(唱者)나 가창방식 등 여러 조건에 의해서 각기 다르게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월범(한국전래동요연구, 1995)은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전래동요의 기능 · 사설 · 곡조 중 어린이들 삶의 현장문제나 기능을 중심으로 제1차 분류를 하였다. 따라서 생활에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불려진 기능요(functional song)와 일정의 기능이 전제되지 않고 노래 자체의 흥과 즐거움 때문에 불려진 비기능요(non-functional song)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1) 기능요

- ① 놀이동요-시절놀이요(강강술래), 일반놀이요(이거리저거리), 조작놀이요(두꺼비집)
- ② 말놀이동요-말풀이요(하늘천따지), 말장난요(말꼬리잇기)
- ③ 놀림동요-사람놀림요(장사꾼놀리기), 신체놀림요(앞니빠진갈가지), 동물놀림요 (오줌싸개), 동물놀림요(방아깨비)
- ④ 일동요-자장요(둥개야), 家事조력요(앞산아땡겨라)
- ⑤ 주술동요-동물대상주술요(잠자리공공), 개선희망주술요(비야비야)
- ⑥ 예언동요-삼국시대요(서동요), 고려시대요(목자요), 조선시대요(늑두새요), 근 세요(석탄백탄)

(2) 비기능동요

- ① 자연현상-눈, 더위, 달, 바람, 별, 해, 비요 등
- ② 사물동요-떡요, 방아요, 도리깨요 등
- ③ 동물동요-새요, 곤충요, 짐승요, 물고기요 등
- ④ 식물동요-꽃요, 풀 · 나무요 등
- ⑤ 인간동요-가족요, 부모요, 할머니요, 누나요, 계모요, 동생요, 형부요 등

한편 편해문(옛 아이들의 노래와 놀이 읽기, 2002)은 아이들 노래 분류의 가장 중요한 잣대는 아이들 세계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아이들 노래 모두는 놀며 부르는 노래이며, 노는 데 노래가 어떠한 구실을 하고 있는가가 차이가 날 뿐이라고 하였다. 또 아이들이 주변의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하였으며 이것을 어떠한 기능으로 이어 노래로까지 불렀는지가 밝혀져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분류 하였다.

- (1) 놀이하며 부르는 노래
- (2) 놀리며 부르는 노래
- (3) 바라며 부르는 노래
- (4) 흥내내며 부르는 노래
- (5) 익히며 부르는 노래

4) 전래동요의 특성

- (1)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전해진다.
- (2) 대중작으로서 작자나 시창자(始唱者)가 없다.
- (3) 구구전승(口口傳承)되어 시간 · 장소 · 상황에 따라 노랫말과 행위형태가 가변적이다.
- (4) 아동들의 다양한 관찰과 경험이 말과 노래로 자연스럽게 표현된다.
- (5) 곡조에 구애됨이 없이 노래로 불려진다.
- (6) 희노애락의 감정 표현이 응축되어 있다.(아동들의 삶이 노래화 된 음악적 산물)
- (7) 아동들이 따라 부르고 물려다니며 즐겨왔다.
- (8) 아동들의 꿈과 지혜가 나타난다.
- (9) 우리음악의 기본적 음악어법을 내재하고 있다.
- (10) 음악적으로 매우 소박하고 단순한 특성을 지녔다.
- (11) 음역이 좁고 사용하는 음이 적다.(1음음계, 2음음계, 3음음계가 대부분)
- (12) 속도가 빠른 편이다.
- (13) 놀이, 춤 등 신체표현과 관련된 것이 많다.

5) 전래동요 교육의 의의

- 1) 우리음악의 기본적 어법을 체득할 수 있다.

전래동요에 실려 있는 장단과 선율의 특징은 우리 음악의 기본적 어법이다. 아이들은 전래동요를 부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음악어법을 체득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운 형식의 우리 음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얻을 수 있다.

- 2) 우리말의 어휘와 표현력을 기를 수 있다

전래동요에는 다양한 우리말의 운율, 어휘, 해학적인 풍자 등이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노래를 불러봄으로써 다양한 우리말의 표현법을 익힐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언어발달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

3)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

사회의 구조가 점점 복잡해지고,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문화가 확산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직접적인 관계나, 개인과 사회의 인간적인 소통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자칫 더불어 살기 위한 규범이나 질서 등을 익히지 못하여 사회문제로 확대 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전래동요와 그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의 경험은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교육내용임을 확신한다.

4) 창의적 표현력을 기를 수 있다

전래동요는 어느 한 형태로 고정된 노래나 놀이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를 추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노랫말이나 놀이 등을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게 하는데, 아이들이 직접 노랫말과 놀이를 만들어 가는 과정 자체가 창의적 표현력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다.

[전래동요의 교육적 의의]



6) 전래동요의 지도를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

- 1) 어린이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
- 2) 음악적 체험을 선행해야 한다.
- 3) 우리음악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어야 한다.
- 4) 국악어법에 기초한 노래부르기 능력이 있어야 한다.
- 5) 장단 반주능력이 있어야 한다.
- 6) 음악(곡)에 대한 지적 이해가 있어야 한다.
- 7) 어린이의 반응에 따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 8) 즉흥능력이 있어야 한다.

7) 전래동요의 교육활동 체계

(1) 듣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노래 듣기(무반주) - 교사의 노래 듣기(장단과 함께) - 음향기를 통해 관현악 반주가 있는 노래 듣기
(2) 노랫말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랫말 읽기 - 노랫말의 의미와 배경 이해
(3) 노래 읊조리기 (말노래, cha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단의 원리에 따라 읊조리기 - 빠르기의 변화에 따라 읊조리기 - 리듬치기(전통악기, 서양리듬악기, 재현용악기, 몸악기-바디퍼쿠션 등 활용)
(4) 선율에 얹어 부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율 유형에 따라 부르기 - 선율을 손으로 표현하며 부르기
(5)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랫말을 동작으로 표현하기(손율동, 춤, 몸율동, 게임율동 등 활용) - 노래와 함께 놀이하기
(6) 노래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가사 바꿔 부르기 및 가사 짓기 - 리듬창작을 통해 바꿔 부르기 - 새로운 가락짓기
(7) 통합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 조형, 문학, 음악극 등의 활동으로 확대하기 (예: 별자리 만들기, 데칼코마뉴, 동네지도 만들기 등)

8) 전래동요의 정체성

1905년 을사보호조약에 따라 일본은 한국에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하고, 제1-2차 학교령을 발포하여 한국에서의 교육정책을 사실상 주도하였다. 이후 1910년 한일병합(韓日併合)과 함께 설치된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는 제1-4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대한식민지 교육정책을 추진한다. 식민지교육에서 음악교육의 특징은 ‘내선융화’(內鮮融化)와 ‘내선일체’(內鮮一體)를 통한 ‘동화교육’(同化教育) 및 ‘황국신민화교육’(皇國臣民化教育)에 충실한 실천이었다. 그에 따라 음악교육은 ‘일본 천황폐하의 충량(忠良)한 국민으로서 심정을 순정케 하고 덕성을 함양하는 창가(唱歌, 쇼오카, ショウカ)’가 중심을 이룬다. 통감부시기인 1910년에 대한제국학부(大韓帝國學部) 발간의 『普通教育唱歌集』과 1914년 조선총독부 발간의 『新編唱歌集』을 시작으로 한 일제시대 제도권 음악교육은 우리 전통음악 창조적 계승을 가로막고, 일본이 서양음악을 수용하여 자국의 근대음악으로 일반화시킨 창가

교육의 강제적 주입으로 나타난다.

창가는 내용적 측면에서 일본정신과 천황에의 충성을 명시하는 의식창가와 식민지 시대정신에 부합되지 않는 자연에 대한 노래, 노동력과 생산독려에 대한 노래 등이며, 음향적 재료면에서는 대부분 요나누키(ヨナ抜き) 음계와 2박자류이며, 가사의 율격이 7·5조로 획일화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음악적 내용은 3박자 중심의 우리 장단체계와 4·4조를 기본으로 한 율격이 해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영향은 이후 192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동요창작운동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모습이 많은 창작동요에서 드러난다.(「반달」·「고향의봄」·「설날」·「산토끼」·「우리나라꽃」·「오빠생각」·「고드름」·「달 따라 가자」 등)

또한 이시기는 일본이 일본식으로 차용한 많은 서양음악이 강제적으로 주입되는데, 나비야나비야(스페인민요, 「蝶蝶」, 쫓오쫓오), 앞으로앞으로(프랑스민요, 「進め進め」, 스스메스스메), 술술부는봄바람(독일민요, 「霞雲」, 카스미카 쿠모카, 안개인가 구름인가), 거미(위신통행진곡의 선율을 차용, 「やよ花」, 야요 하나자쿠라), 작은별(프랑스민요, 「うづまく水」, 우즈마쿠 미즈, 소용돌이 치는 물) 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일본의 전래동요(와라베우타, わらべうた)이거나, 그의 영향을 받은 곡들이 현재에도 버젓이 우리의 전래동요로 차용되는 경우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아침바람」·「꼬마야꼬마야」·「여우야여우야」·「우리집에왜왔니」·「숫자노래-잘잘잘」·「똑똑똑누구십니까」·「두껍아두껍아」-가사는 전통적임·「짱껌뽕-목찌빠, 가위바위보」·「셋셋셋」·「감자에씩이나서」·「숨박꼭질노래」 등이 바로 그 것이다.

살펴본바와 같이 우리의 전래동요로 인식되고 있는 많은 노래들이 한국의 음악어법을 내재하고 있지 않은 일본 중심의 동요임을 밝혔다. 따라서 우리 고유의 전래동요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방법을 체계화 시켜야 할 것이다.

6. 영아기 노래놀이 및 전래동요와 함께하는 국악놀이의 실제

1) 찹찹곤지곤지짜자쿵

짜자쿵은 영아기 놀이 중 눈과 손의 협응을 도와주며 손바닥을 치니 소리가 난다는 중요한 경험을 하게 하는 놀이이다.

찹찹은 오랫동안 오무렸던 아기의 손가락을 펴게 하고, 물체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손운동이다.

곤지곤지는 짜자쿵과 찹찹을 마치고 하는 세련된 동작으로 오른손의 검지손가락을 뺨고 중지, 약지, 식지를 오므리고 그 위에 검지를 얹어 잡아야 하는 기능은 운동기능의 성숙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러한 노래를 친구들과 할 수 있는 놀이로 구성해 보았다. 이는 5, 6세의 유아들에게 신체접촉을 통한 놀이로 활용하여 정서발달과 사회성발달을 꾀하며 우리음악의 기본 장단과 선율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한다.

[잼잼]




잼 잼 잼 잼 잼 잼 잼 잼

[곤지곤지]



곤 지 곤 지 곤 지 곤 지 곤 지 곤 지 곤 지 곤 지

[짹짹쿵]



짹 짹 쿵 짹 짹 쿵 짹 짹 쿵 짹 짹 쿵

「잼잼곤지곤지짹자쿵」 노래 부르기

잼			잼			잼			잼		
곤	지	-	곤	지	-	곤	지	-	곤	지	-
짹	-	자	쿵			짹	-	자	쿵		

자진모리장단

1	2	3	2	2	3	3	2	3	4	2	3
덩			덩			덩	-	따	쿵	따	
덩	-	따	쿵	따		쿵	-	따	쿵	따	

「잼잼곤지곤지짹자쿵」을 활용한 놀이

- 혼자놀이 : 아기의 성장발달을 도모하며 했던 전통적 동작
- 짹놀이, 단체놀이 : 몸풀기 놀이로 새롭게 구성한 동작

2) 맴맴

-맴 : 빙빙 돌다.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혀도 얼얼하고 머리도 빙빙 도는 것을 표현한 노래

-“아버지는 나귀타고 장에 가시고”로 시작되는 근대창작동요의 원노래

고 추 먹 고 맴 맴 마 늘 먹 고 맴 맴
달 래 먹 고 맴 맴 ? ? 먹 고 맴 맴
앞 산 - 도 뽕 뽕 뒷 산 - 도 뽕 뽕
뽕 글 뽕 글 돌 아 라 가 위 바 위 보

♣ 연계활동 : 다른 매운 양념 및 매운 음식들을 알아보고 가사 붙이기 한다.

(예) 양념 : 양파, 교자, 생강, 대파

음식 : 김치, 매운탕, 라면, 떡볶이, 낙지볶음

♣ 벌칙노래

[가마솔의 누룽지](자진모리)

가 마 솔 의 누 룱 지 뽕 뽕 굽 어 서
오 드 득 오 드 득 씹 어 서 맛 있 게 먹 자 - -

3) 나무노래

옛 아이들의 주요한 놀이 공간은 자연 그 자체였다. 더울 때는 냇물에서 수영을 했고, 나무와 풀 속에 있는 곤충과 함께 놀았으며, 여러 자연 대상물을 흉내 내기도 하면서 놀았다. 「나무노래」는 아이들이 주위의 여러 나무를 보면서 노래말을 만들어 부른 노래이며, 어깨동무 하면서 부르기도 하였다.

다음의 옛 이야기가 「나무노래」가 만들어진 배경이다.

‘옛날에 대나무하고 뽕나무하고 참나무가 살았는데, 하루는 뽕나무가 방귀를 “뽕뽕” 끼니가 옆에 있던 대나무가 “땃기눔” 하니, 그 옆에 있던 참나무가 “참아라 참아라” 했대요’

가 자 가 자 감 나 무 오 자 오 자 옷 나 무

바 람 솔 솔 소 나 무 너 하 구 나 하 구 살 구 나 무

방 귀 뽕 뽕 나 무 가 자 가 자 감 나 무

오 자 오 자 옷 나 무 바 람 솔 솔 소 나 무

너 하 구 나 하 구 살 구 나 무 방 귀 뽕 뽕 나 무

♣ 다른 노래말 : 십리 절반 오리나무, 대낮에도 밤나무, 참자 참자 참나무

♣ 연계활동1 : 노래 부르며 짝놀이

♣ 연계활동2 : 다른 나무, 식물, 동물, 곤충, 가족, 친구 등을 소재로 노래말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노래말 창작시에는 언어와의 연계성뿐만 아니라 오감(시각, 미각, 후각, 촉각, 청각)을 활용하여 창작할 수 있다.

(예) 사과 : 사각 사각 사과나무 / 동글 동글 사과나무 / 빨강 빨강 사과나무 /
새콤 달콤 사과나무 / 미끌 미끌 사과나무 / 미안 미안 사과나무

(예) 곤충 : 슬금 슬금 송충이 / 춤잘춘다 무당벌레 / 폴짝 폴짝 메뚜기

(예) 나비 : 나비 나비 범나비 / 배추 밭에 흰나비 / 장다리 밭에 노랑나비 /
팔랑 팔랑 잘난다 / 사랑 사랑 춤춘다

♣ 노래말을 만들어 보세요



< 나무 >



< 나무 >



< 나무 >



< 나무 >



< 나무 >

II. 소고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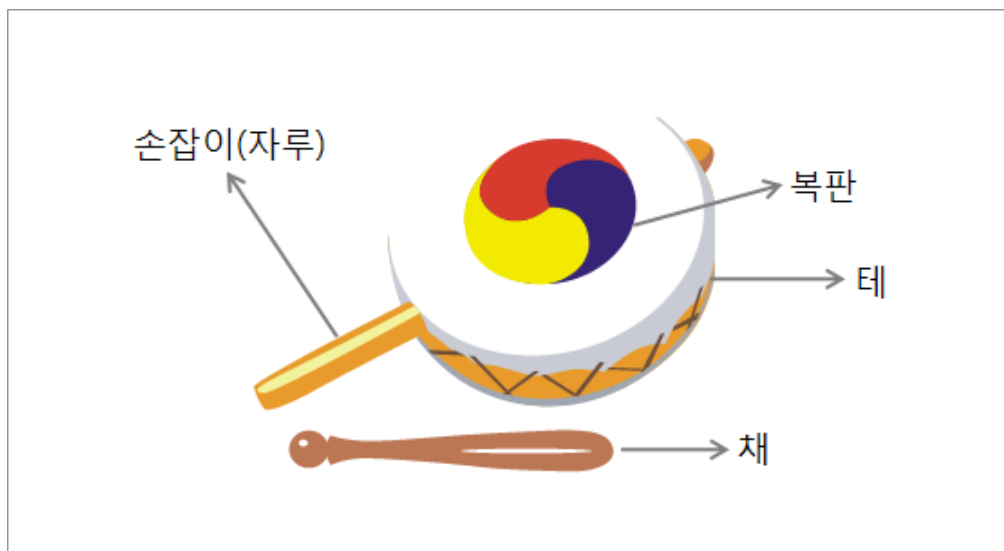
1. 소고에 대하여

1) 소고의 유래

소고는 대개 손잡이가 달린 약 지름 21cm 정도의 작은 북을 말한다. 농악에서는 지역에 따라 소고와 벽구, 버꾸 등의 이름을 혼용하기도 하고, 소고보다 좀 더 작은 북을 만들어 그것을 벽구, 버꾸 또는 뱃고라고 하기도 한다. 선소리패의 산타령이나 남도소리꾼들의 잡가판에서도 소고가 사용된다. 또한 민속춤 가운데 소고를 이용한 소고춤도 있다.

특히 상모(象毛) 달린 병거지나 고깔을 쓴 농악패들이 양손에 북과 북채를 갈라 쥐고 경쾌하고 날렵하게 소고춤을 추는 모습이 떠오를 만큼 춤과 떼어 놓을 수 없다. 여러 명의 소고재비들이 바람개비처럼 연풍대를 돌거나 앓은뱅이걸음으로 재주를 보이는 대목은 물론이고, 농악 장단에 맞춰 팔을 전후좌우로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소고를 두드리는 등, 농악판에는 소고가 들어가야 풍성하다. 그런가 하면 소고가 더없이 잘 어울리는 소리판도 있다. 지금은 이런 놀이판을 공연장에서나 볼 수 있지만, 예전에는 소고를 치며 소리하고 춤을 추는 것이 서민들의 생활에 가장 가까이 있던 볼거리였다.

2) 소고의 구조와 명칭



3) 소고의 구음(口音)과 표기법

구음	치는 방법	교육방법	부호
쿵(덩)	채로 복판을 친다	가운데 ‘쿵’	○
딱	채로 테를 친다.	테두리는 ‘딱’	┃
뒷면 ‘쿵(덩)’	채로 뒷면(반대면)을 친다.	돌려서 ‘쿵’	◐
옆 친구 소고 ‘쿵(덩)’	채로 오른쪽 옆 친구의 소고면을 친다.	옆 친구 ‘쿵’	●

4) 소고 잡는 자세와 준비동작

교사 : 소고 준비

어린이 : 허이



<앞면>



<옆면>

5) 전통사회에서 소고의 활용



「현천 소동패놀이」

소동패놀이는 공동작업(두레)을 하기 위한 조직으로 20세 이상은 대동패, 16~19까지는 소동패로 조직하여 농악, 노래, 춤 등이 혼합되어 풀베기, 김매기 같은 공동작업 때에 고달픔과 지루함을 달래면서 일의 능률을 올리고자 한 놀이이다.



<남사당놀이 중 풍물 : 소고채상놀이>

6) 소고치기의 기초 - 리듬치기

-선생님 따라 치기(난이도 조절-점점 복잡하게)

-반대로 따라 치기(복판과 테두리)

-말리듬 치기

: 엄 마 / 아 빠 / 사 랑 / 해 요

: 우 리 는 / 대 한 의 / 멋-진 / 어 린 이

-쉬운 노래에 맞춰 치기)

: 고향의 봄 / 뽀뽀뽀 / 월드컵아리랑 / 멋쟁이토마토

: 오른쪽, 왼쪽, 위, 아래에서 각 8번, 4번, 2번, 1번<×2> 치기

7) 인사장단치기

- 인사굿 올리웁니다!

1	2	3	2	2	3	3	2	3	4	2	3
덩	덩	히이	덩	덩	히이	더더	덩	덩	덩	덩	
안	녕		안	녕		안녕	하	세	요	오	

×2

덩 ~ 인사

(“덩”치고 소고 잡은 왼손은 머리 위로 올려 한 바퀴 원을 그리며 가슴 앞으로 가져오고, 채를 잡은 오른손은 오른쪽 옆구리 뒤쪽에 대고 인사하며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고 고개를 든다. 서서 할 때는 왼발의 뒷꿈치를 축으로 앞에 내딛는다.)

8) 소고노래 - 내 친구 소고도령

내 친구 소고도령

모형오 작사
모형오 작곡

동살풀이 ♩ = 103

쿵 쿵 딱 딱 쿵 쿵 쿵 딱딱딱 내 친구 소고도령

5
가느 다란 목에 동글동글 태극얼굴 머리위에 뽕 - 달고

9
채를 들어 - 별을 걸고 - 소고 들어 - 달을 걸 자 -

13
쿵 딱 쿵 딱 쿵 딱딱딱 쿵 딱딱 내 친구 소고도령

9) 민요 「아리랑」(세마치장단) 소고놀이

1	2	3	2	2	3	3	2	3
뎡			뎡	-	따	쿵	따	
○								
○			○					
○			○			○		
○						◐		
○			▮			▮		
○						▮		
○			●			●		
○						●		

10) 민요 「옹헤야」(동살풀이장단) 소고놀이

동살풀이

옹헤야 어절씨구 저절씨구 잘도논다

옹헤야 옹헤야 옹헤야 옹헤야

에헤에헤 어절씨구 잘도논다

옹헤야 옹헤야 옹헤야

오뉴월에 메추리란놈이 보리밭에 알을낳네

옹헤야 옹헤야 옹헤야 옹헤야

에헤에헤 어절씨구 잘도논다

옹헤야 옹헤야 옹헤야

※ 가사 중 “오뉴월에” 대신 “철뚝넘어”로도 많이 쓰임.

○ ○ | | ○ ○ | | ○ ○ | | ○ ○ | | ○ ○ ○ |

옹헤야(옹헤야) 어절씨구(옹헤야) 저절씨구(옹헤야) 잘도논다(옹헤야)

○ ● ○ ○ ○ ● ○ ○ ○ ● ○ ○ ○ ○ ○ |

에헤에헤(옹헤야) 어절씨구(옹헤야) 잘도논다(옹헤야)

○ ○ ● ● ○ ○ ● ● ○ ○ ● ● ○ ○ ● ● ○ ○ ○ |

오뉴월에(옹헤야) 메추리란놈이(옹헤야) 보리밭에(옹헤야) 알을낳네(옹헤야)

○ ● ○ ○ ○ ● ○ ○ ○ ● ○ ○ ○ ○ ○ |

에헤에헤(옹헤야) 어절씨구(옹헤야) 잘도논다(옹헤야)

Ⅲ. 탈춤놀이



1. 탈춤의 유래 특성

- 탈춤놀이는 얼굴에 탈(가면)을 쓰고 추는 춤과 노래, 대사가 어우러지는 가면극이다.
- 탈춤은 북방 해서지역의 ‘봉산탈춤’, ‘강령탈춤’ 등이 있고, 중부지방에는 ‘송파산대놀이’, ‘양주별산대놀이’ 등이 있으며, 남부지방에는 ‘고성오광대놀이’, ‘수영야류’ 등이 있다. 해서 지방의 탈춤에서만 한삼이라는 도구가 사용되었다.
- 한반도의 북방지역에서 전승된 ‘봉산탈춤’ 등 해서지방의 탈춤에서만 ‘탈춤’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송파산대놀이 등의 중부지방의 탈춤과 고성오광대놀이 등의 남부지방의 탈춤에서는 ‘놀이’라는 용어로 탈춤이 전승되었다.
- 탈춤놀이에서는 ‘양반과의 갈등’, ‘처첩간의 갈등’, ‘종교적인 갈등’ 등이 풍자와 해학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 본 프로그램에서는 해서지방의 ‘봉산탈춤’을 응용한 창작탈춤놀이를 진행하였다.

2. 전통그림에 나타난 탈춤의 유래



<고구려 무용총 벽화>



<처용무>



<무신진찬도병(戊申進饌圖屏) 중 3폭 여령 정재>

1848년(헌종 14) 대왕대비 육순과 왕대비(신정황후조씨)의 망오(41세)를 기념하여 제작한 진찬소의 도병으로 연향이 거행된 장소는 창덕궁의 통명전이다. 위 그림에는 궁중춤(정재)인 헌선도, 무고, 처용무, 향발, 몽금척이 나타나 있다.

3. 타령장단과 추임새

-타령장단 구음(口音)과 추임새 익히기

1	2	3	2	2	3	3	2	3	4	2	3
덩			따		기	덩	-	딱	얼	-	쭈
덩			딱			덩	-	딱	얼	-	쭈

-장단구음과 추임새놀이

돌아가면서 장단구음을 하고 “얼~쭈”에 ‘자기 이름’ 혹은 ‘옆 친구 이름’ 넣기

4. 대사

(1) 개인춤 대사

- 아 ~ 쉬이..... × 2
- 어~이 친구들 → 어~이
- 나는 ○○○○에 사는 ○○○○인데, 나는 커서 ○○○○가 되겠네
→ 좋~지

(2) 합동춤 대사

어이... 친구들 → 어~이
 오늘같이 좋은날에 → 어~이
 우리 꿈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신명나게 놀다가세 → 좋~지

 아 ~ 쉬이..... 아 ~ 쉬이..... 쉬이 ~~~~
 어이... 친구들 → 어~이
 우리가 누구인가 → ○○○○에 사는 멋쟁이 한국인들이 아닌가
 그렇지, 오늘 같이 좋은날 신명나게 놀아보세 → 좋~지

5. 국악동요 「탈춤놀이」 악보

자진모리 정구성 작사
이성동 작곡

미운얼굴 - - 고운얼굴 - - 탈 하나에가려두고 - - - -

어른아이 - - 한 데어울려 - - 탈춤놀이 하 여보 자 - - - -

탈춤판을 벌여보 자 탈춤놀이 재미있 다

탈춤판을 벌여보 자 탈춤놀이 재미있 다

신 명 나게풀어 놓 는 - - - 탈춤 놀이한 - 마 당 - - -

우리가 락종을씨고 - - - - 우리장단종을씨고 - - - -

우리가 락종을씨고 - - - - 우리장단종을씨고

신 명 나 게풀어 놓 는 탈춤 놀이한 마 당 - - - - 탈춤 놀이

- - - - 탈춤 놀이한 마 당 - - - - 탈춤 놀이

산도 들도 - - 덩실덩실 - - 하늘까지 출렁 출렁 - - - -
산도들도 덩실덩실 하늘까지 출렁출렁

한삼 자락 - - 휘감으면 - - 탈춤놀이 하여보자 - - - -
한삼자락 휘감으면 탈춤놀이 하여보자

탈춤 판을 벌려보 자 탈춤놀이 재미있다
탈춤 판을 벌려보 자 탈춤놀이 재미있다

신 명 나게 풀 어 놓 는 - - - 탈춤 놀이 한 - 마 당 - - -

우리 가 락 종 을 씨 고 - - - - 우리 장 단 종 을 씨 고 - - - -
우리 가 락 종 을 씨 고 - - - - 우리 장 단 종 을 씨 고

신 명 나 게 풀 어 놓 는 탈춤 놀이 한 - 마 당 - - - 탈춤 놀 이
- - - - 탈춤 놀이 한 - 마 당 - - - 탈춤 놀 이

6. 국악동요 「탈춤놀이」와 함께하는 창작탈춤동작

-입장 : 한삼을 좌우로 흔들면서 뛰어 입장하여 자리를 잡는다.

-대사 : 한 명이 주 대사를 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대답을 한다. 혹은 전체가 동시에 주어진 대사를 한다. 대사를 할 때는 한삼을 각자 자리에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한삼을 적절히 흔들다.

-전주 : 두 손을 앞으로 모아 얼굴을 가리고 리듬을 탄다.

-1절 :

1. 노젓기 2. 고개잡이 3. 개구리뛰기 4. 걷기 5. 물결사위 6. 손뽕외사위
(뒤로 돌기)

-간주 : 뒤 돈 상태에서 어깨춤을 춘다.

-2절 :

1. 짝과 마주보고 앞뒤로 이동하며 춤을 춘다.
2. 정면을 보고 앞뒤로 이동하며 춤을 춘다.
3. 개구리뛰기(조를 나누어 순차적으로 뛰어 앉는다.)
4. 어깨춤을 추며 일어나서 오른쪽으로 한바퀴 돈다.
5. 물결사위
6. 손뽕외사위(뒤로 돌기)